

(제2편) 일본의 곡물 수급 동향

신동철(일본농업경영대학교 전임강사)¹⁾

1. 일본의 식량 자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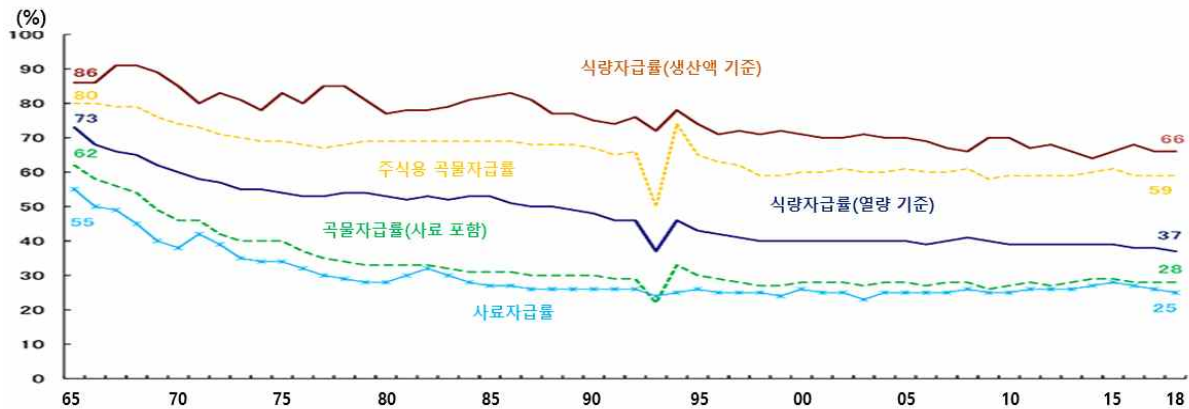
1.1. 일본의 식량 자급률 현황

2018년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열량 기준으로 37%, 생산액 기준으로 66% 수준이다. 열량 기준 자급률은 기상악화로 맥류, 콩, 사료작물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사료 자급률이 하락하면서 전년대비 1% 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1993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역대 최저치이다.

생산액 기준 자급률의 경우, 채소, 달걀의 생산량 증가로 단가가 하락한 반면, 가리비 등의 수출 증가, 국내산 사탕무를 이용한 설탕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일본 정부는 2020년 3월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식량 자급률의 목표치를 열량 기준의 경우 45%, 생산액 기준은 75%로 결정하였다.

<그림 1> 일본의 식량 자급률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열량 기준 자급률은 1996년 이후 40% 전후로 거의 보합 상태이며, 생산액 기준 자급률

1) sdc1012@afj.or.kr

은 1996년 이후 60%대 후반부터 70%대 전반의 범위에서 변동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소비 패턴 변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쌀 소비가 감소하는 한편, 축산물이나 유지류의 소비가 증가해 왔다. 1965년과 2018년의 식생활 패턴을 비교해 보면, 소고기요리(육류)와 식물성기름(유지류)의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대로 쌀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일본의 쌀 소비 감소는 외식이나 중식²⁾이 늘어나면서 가정내 식사량이 감소한 것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그림 2> 일본의 식생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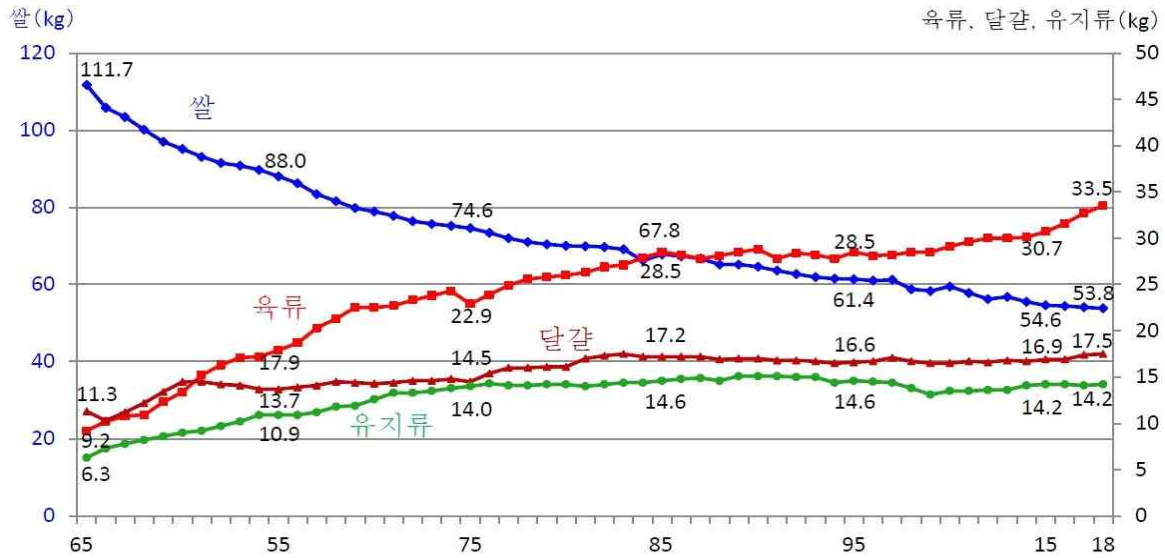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知ってる? 日本の食料事情」, 2019년 9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1인당 연간 소비량의 장기적인 추세에서도 쌀 소비 감소와 축산물 소비 증가세는 현저하게 드러난다. 1965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11.7kg에서 2018년 53.8kg까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반면, 동기간 육류 소비는 약 3배, 달걀 및 유지류 소비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 외식과 가정식의 중간 단계로 반찬이나 도시락 등을 구입 돌아와 집에서 먹는 것, 혹은 그 식품을 의미한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중식은 가정 밖에서 조리·가공된 식품을 가정이나 직장·학교 등에서 먹는 것, 해당 식품의 총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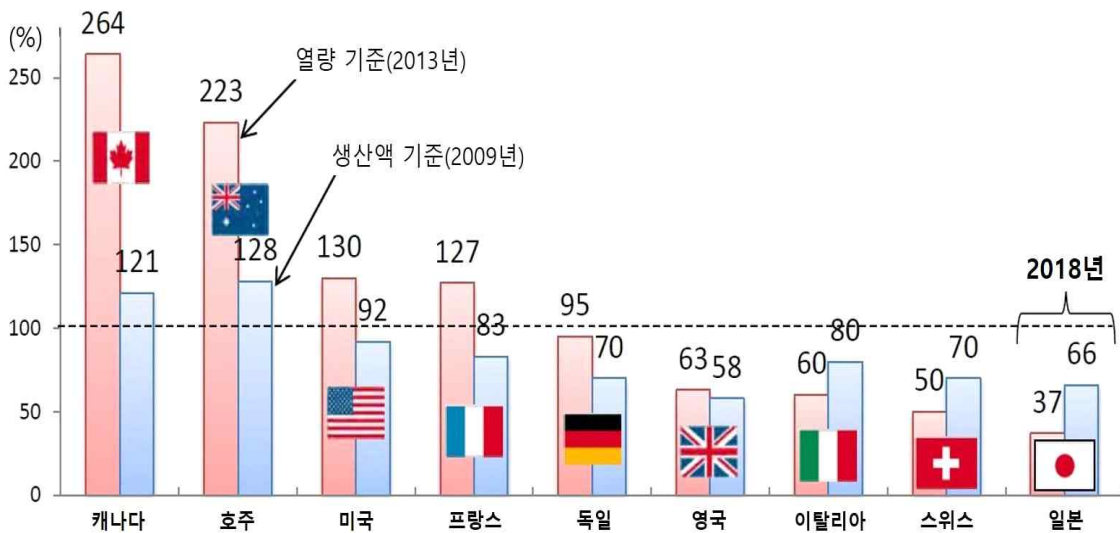
〈그림 3〉 일본의 쌀, 축산물, 유지류의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知ってる? 日本の食料事情」, 2019년 9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쌀을 제외한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식량 식량자급률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쪽에 속한다. 주요 곡물 수출국인 캐나다, 호주, 미국의 열량 기준 자급률은 100%를 넘어서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비교 대상국들 가운데 가장 낮다. 한편,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생산액 기준으로도 영국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세계 속 일본의 식량 자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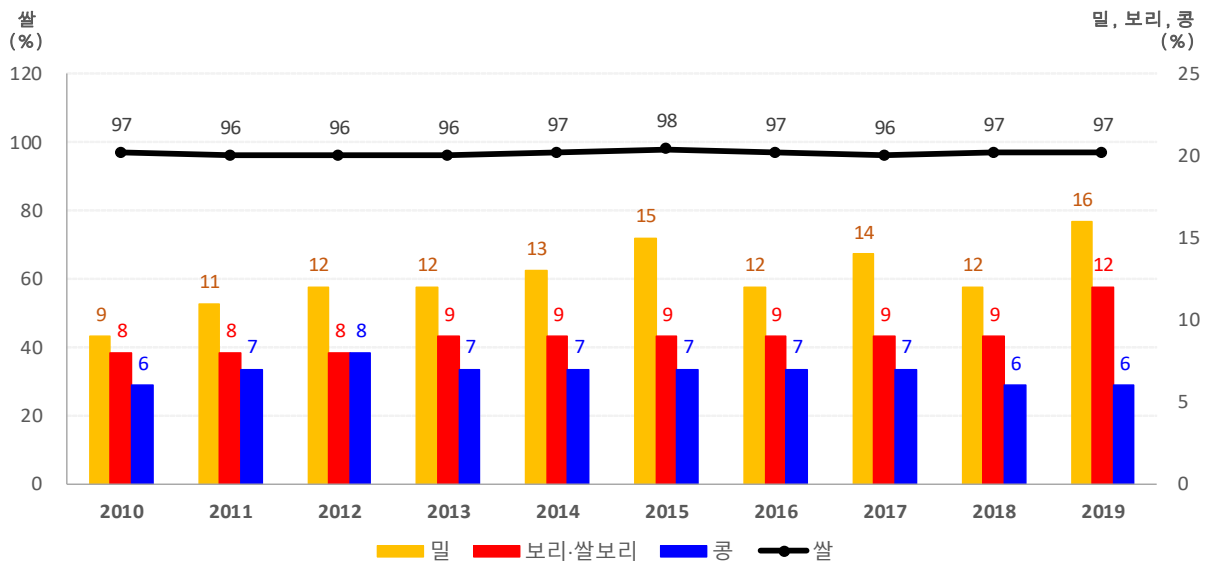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知ってる? 日本の食料事情」, 2019년 9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1.2. 쌀 자급 유지, 맥류와 콩 자급률은 10% 내외

일본의 주요 곡물 자급률을 살펴보면, 쌀은 97% 내외로 안정적이며 자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쌀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 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WTO협정 이후 시장접근물량(MA)을 국영무역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며, 쿼터외 수입은 고율관세가 부과되어 MA쌀 이외의 수입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맥류와 콩의 자급률은 약 10% 내외로 비교적 낮은 실정이다. 2019년 밀과 보리의 자급률은 각각 16%, 12% 수준이나, 수입자유화 품목인 콩의 자급률은 6%로 맥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림 5〉 일본의 주요 곡물 자급률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食料需給表」.

2. 쌀 수급 동향

2.1. 주식용 쌀 재배면적 감소하나, 사료용 쌀 등의 재배면적은 늘어

일본의 주식용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감소 추세에 있다. 2019년 주식 용 쌀 재배 면적은 지역에 따른 증감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7천 ha 감소한 137만 9천 ha로 나타났다. 2019년 전국 평균 단수는 528kg/10a(2018년 529kg), 작황지수는 99(2018년 9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재배면적의 감소로 2019년 주식용 쌀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0.9 % 감소한 726만 톤이었다.

<그림 6> 일본의 주식용 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作物統計」.

주식용 쌀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쌀 재배면적은 160만ha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식용 쌀 재배면적 감소분이 타용도의 쌀 재배로 대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용도별 쌀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사료용 및 쌀가루용 쌀 면적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쌀가루용 쌀 재배면적은 2010년 2.2만 ha에서 2019년 5.1만 ha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2010년 1.5만 ha에 불과했던 사료용 쌀 재배면적은 2019년 7.3만 ha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³⁾. 이는 주식용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해 그동안 일본 정부가 논 활용 직접지불 교부금 등을 통해 신규수요 쌀 생산을 장려해 온 소기의 성과로 여겨진다. 가공용 쌀 재배면적은 매년 약 4만 ha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7> 일본의 용도별 쌀 재배면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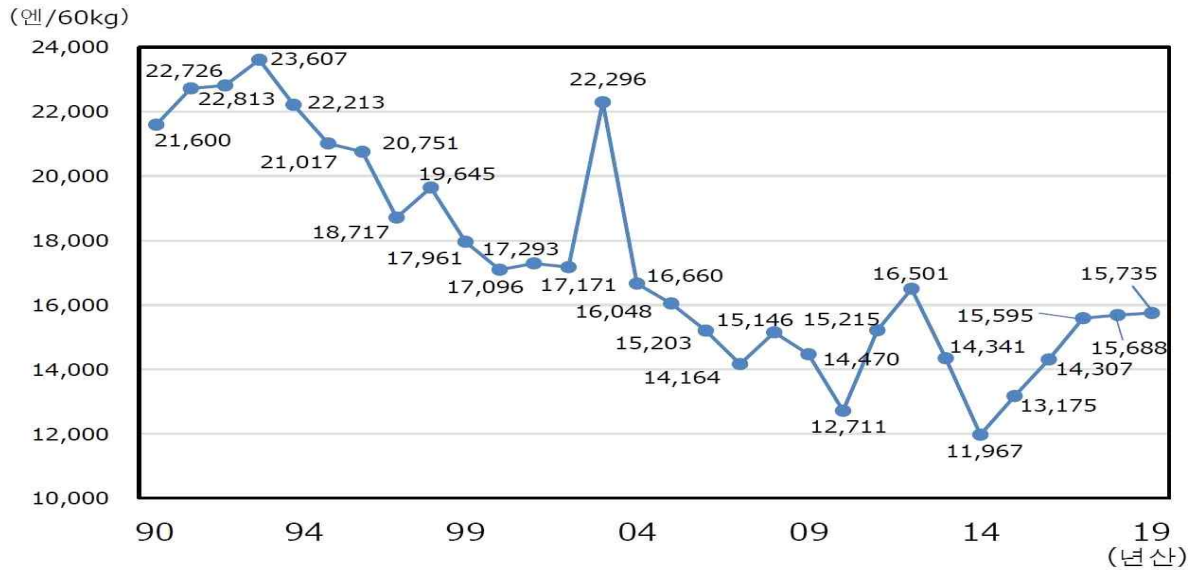
³⁾ 사료용 쌀은 다수확 품종의 도입, 구분관리를 통한 본격적인 본격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료용 쌀 생산의 약 80%를 경영규모 5ha 이상인 대규모 농가가 담당하고 있다.

자료: 농림수산성, 「飼料用米の推進について」, 2020년 7월 공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일본의 쌀 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들어 보합세로 전환되었다. 2019년산 쌀 가격 동향을 보면 60kg당 15,735엔으로 전년산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인구 감소 등에 의해 앞으로도 주식용 쌀의 수요 감소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산지에서 실수요자와 사전계약 및 다년계약을 실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성에서는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쌀 거래의 사전 계약 연구회'를 개최하고 사전 계약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8> 일본의 쌀 가격 추이



주 1) 1990~2005년산까지는 전국쌀거래·가격형성센터 입찰결과.

주 2) 2006년산부터는 신곡 출하 이후 익년 10월까지 상대거래가격의 평균.

주 3) 전국쌀거래·가격형성센터 가격은 종목별 낙찰 수량으로 가중 평균, 상대거래가격은 전년산 검사 수량 웨이트로 가중 평균한 가격.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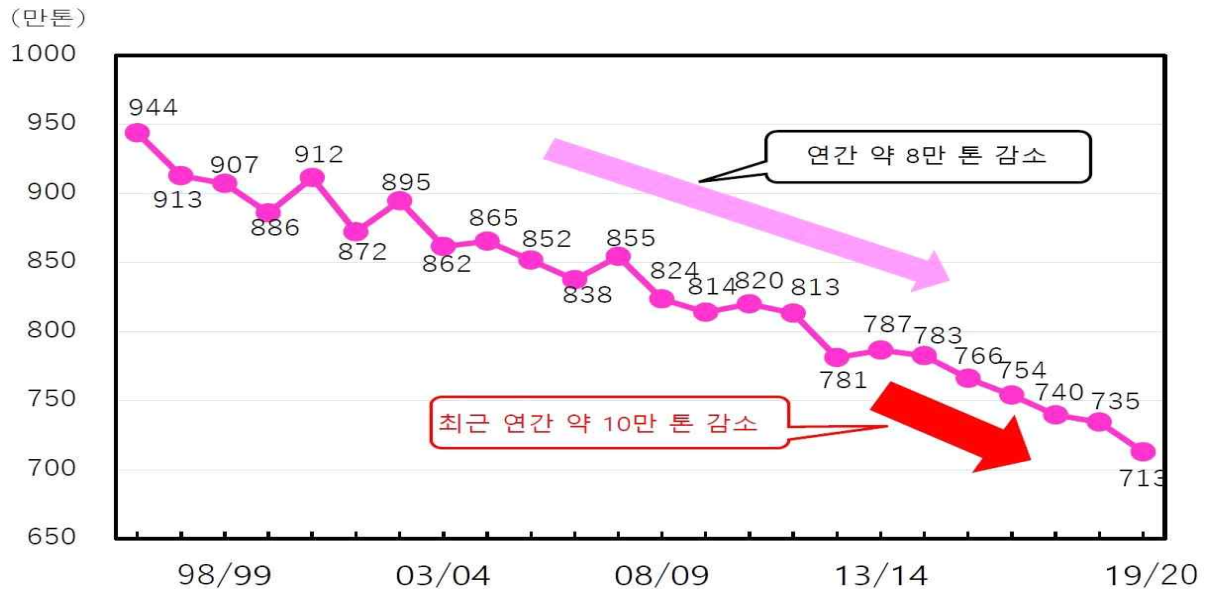
2.2. 쌀 소비량 감소세 지속

일본의 식생활 변화를 몇 가지 살펴보면, 우선, 쌀 소비에서 차지하는 중식·외식의 비율이 약 30%까지 증가함에 따라 쌀을 구입하여 가정에서 밥 짓는 비율이 줄어들었다. 단 신세대, 맞벌이세대가 증가하는 등 세대구조의 변화가 진행되어 밥보다 간단하면서 수고를 들이지 않는 식사가 증가하는 대신 밥을 먹는 비중이 감소하였다.

주식용 쌀 수요량은 식생활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에 따른 1인당 섭취 열량 감소, 인구 감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주식용 쌀 수요

량의 연간 감소폭은 10만 톤 정도로 확대되었다. 인구감소 등의 요인 외 2017년산 이후 상대거래가격이 60kg당 1만 5천 엔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고, 2019년 10월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소비 지출이 둔화된 점도 최근 쌀 수요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림 9> 일본의 주식용 쌀 수요량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1인당 연간 소비량도 장기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62년 118.3kg의 정점에서 2018년 53.8kg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일본 정부는 쌀 소비량이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에도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쌀 소비 확대는 식량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쌀 소비 촉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림 10> 일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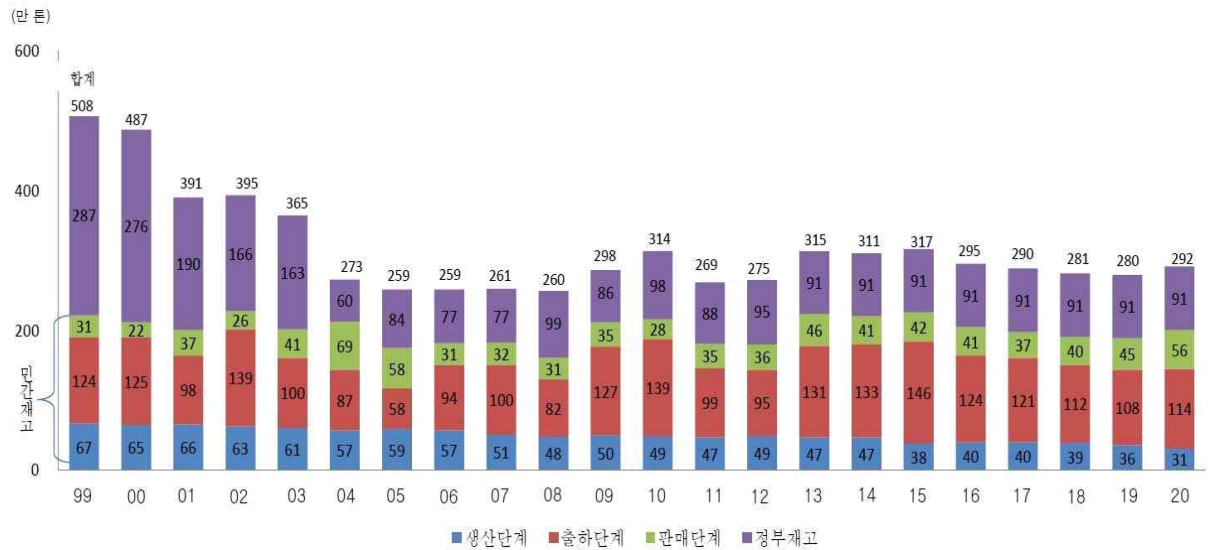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米の消費拡大について」, 2020년 8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2.3. 정부 및 민간 재고 매년 안정적으로 유지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부 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비축미의 적정수준은 원칙적으로 100만 톤 정도로 설정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적정 정부재고 수준이 유지되어 있는 모습이다. 또한 민간 재고량도 최근에는 매년 약 200만 톤 내외로 안정적인 모습이다. 2020년 6월 말 정부 쌀 재고량은 전년과 동일한 91만 톤이며, 민간재고를 더한 총재고량은 292만 톤이다.

<그림 11> 정부 및 민간 재고량 추이(6월 말 기준)



자료: 코메닛, 농림수산성, 「米穀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基本指針」.

한편, 2020년산 정부 비축미 매입계약 수량은 21만 톤이었다. 2020/21년의 정부 비축미는 적정 비축수준이 100만 톤 정도(6월말 기준)인 점을 고려하여, 보유기간이 일정기간 경과한 쌀에 대해 필요에 따라 품질을 확인, 13만 톤~21만 톤의 범위 내에서 비주식용으로 판매할 방침이다.

<표 1> 2020/21년 정부 비축미 운영 계획

단위: 만 톤

2020년 6월 말 재고량(A)	91
2020년산 쌀 매입(계약)수량(B)	21
2020/21년 비주식용 판매량(C)	13~21
2021년 6월 말 재고량(D=A+B-C)	91~99

자료: 농림수산성, 「米穀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基本指針」, 2020년 9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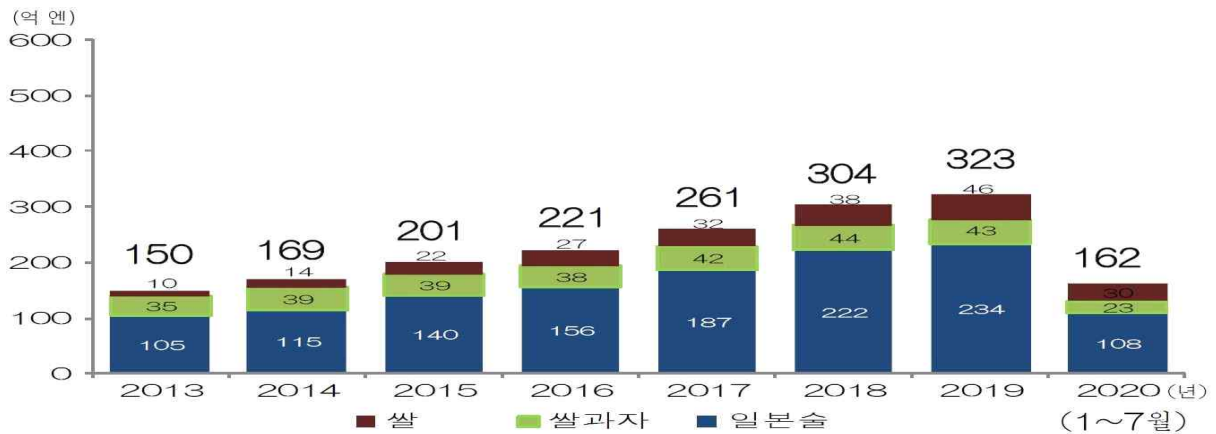
2.4. 쌀 수출 증가 추세

일본의 2019년 쌀과 쌀 가공품 수출액은 323억 엔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하였다. 이 중 쌀 수출액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46억 엔이며, 수출량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26% 증가한 17,381톤이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미국, 중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최근의 수출 성장의 요인으로는 해외 일식 레스토랑, 초밥집 등에서의 일본쌀 수요가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홍콩,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는 일본산 쌀을 현미로 수출하여 현지에서 도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일식 레스토랑, 현지 소매점, 인터넷쇼핑 등에서의 수요 증가, 중추절·춘제 등 선물용 시장의 성장이 뒷받침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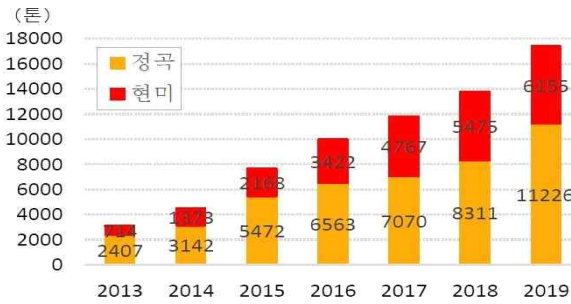
일본의 주식용 쌀 소비량은 매년 약 10만 톤 감소하는 반면, 일본 쌀의 해외시장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 일식 레스토랑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쌀 수출 확대 정책을 전개해오고 있다. 2020년 3월 3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 2030년 농림수산물, 식품의 수출액 목표를 5조 엔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쌀 수출액은 261억 엔이다.

〈그림 12〉 쌀 및 쌀 가공품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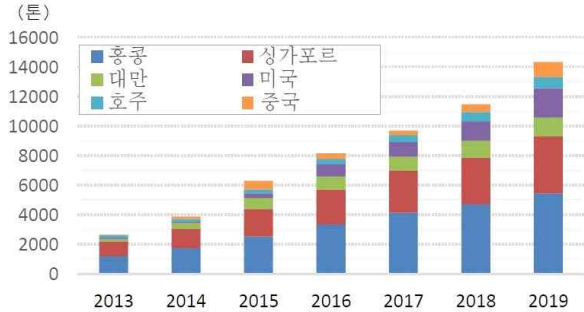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성, 「米に関するマンスリーレポート」, 2020년 9월호에서 재인용.

<그림 13> 상업용 쌀의 수출량 추이



<그림 14> 상업용 쌀의 국가별 수출량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米に関するマンスリーレポート」, 2020년 9월호에서 재인용.

일본은 WTO협정에 의해 1995년부터 MA쌀을 수입해 오고 있다. 1995년 4월에서 2019년 10월까지 수입된 MA쌀은 총 1,736만 톤으로 주식용, 가공용, 사료용, 원조용 등으로 용도가 다양하며, 절반 이상이 사료용과 가공용이다. 사료용 쌀과 가공용 쌀은 2019년 10월까지 각각 653만 톤, 520만 톤이 수입되었다. 현재까지 주식용은 약 154만 톤이 도입되었고, 매년 약 10만 톤 이내의 물량이 판매되고 있다. 일본은 식량원조규약에 의해 원조용으로도 매년 약 20만 톤을 처분하고 있다.

<그림 15> MA쌀 수입 및 판매 현황



자료: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関係資料」, 2020년 7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3. 맥류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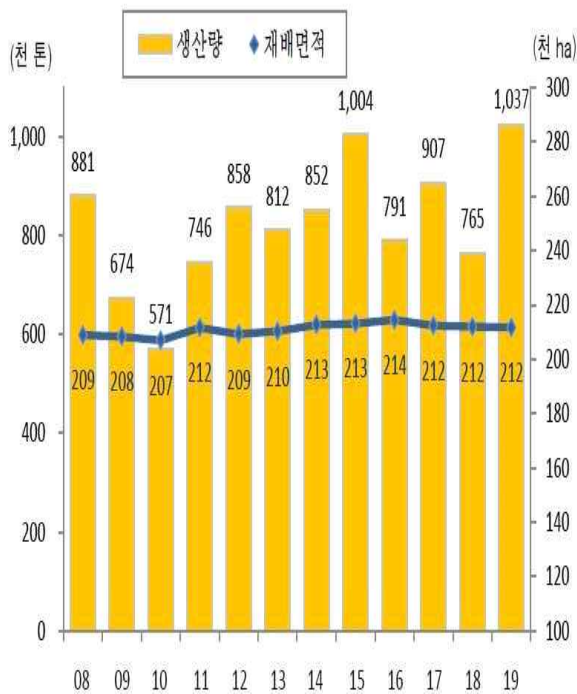
3.1. 밀, 보리 재배면적 정체

일본의 밀 재배면적은 매년 약 21만 ha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9년 재배면적은 홋카이도가 12.1만 ha, 도부현은 9.0만 ha로 전국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21.2만 ha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생산량의 경우는 매년 기상여건 변화 등에 따른 단수 변동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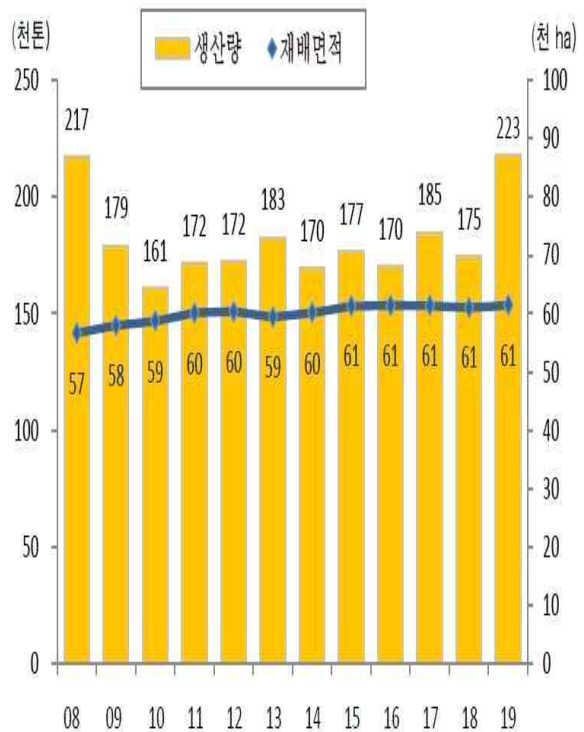
2019년 국내산 밀 생산량은 기상여건 호조로 생육 및 등숙이 양호하여 전년에 비해 홋카이도에서 20.7만 톤 증가하고, 도부현에서는 6.5만 톤 늘어나 전국 생산량은 103.7만 톤으로 전년대비 27.2만 톤 증가하였다.

보리 및 쌀보리의 재배면적은 2015년 이후 매년 6만ha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 2019년 일본의 보리 생산량은 밀과 마찬가지로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단수 증가로 전년대비 4.8만 톤 늘어난 22.3만 톤이었다.

<그림 16> 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그림 17> 보리·쌀보리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자료: 농림수산성, 「麦の需給に関する見通し, 麦の参考資料」, 2020년 3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3.2. 밀 소비량 정체, 국내산 수요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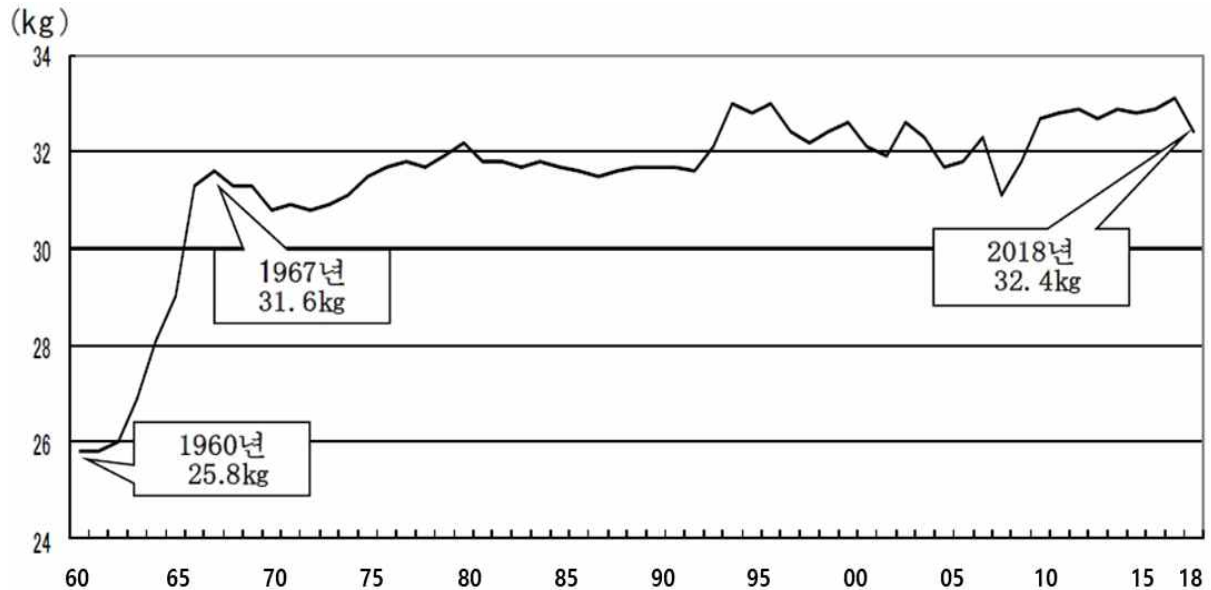
일본의 식용 밀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960년대 후반 이후 32kg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2018년 1인당 연간 소비량은 대략 32.4kg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

다. 이에 따라 식량용 밀의 총수요량은 단기적인 변동은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안정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밀의 총수요량은 약 580만 톤으로 전망된다. 국내산 밀의 경우, 가공적성 등이 뛰어난 우수한 신품종의 도입·보급이 추진되고, 소비자의 국산 선호로 인해 국내산 밀을 사용한 상품의 개발이나 원료를 국내산 밀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산 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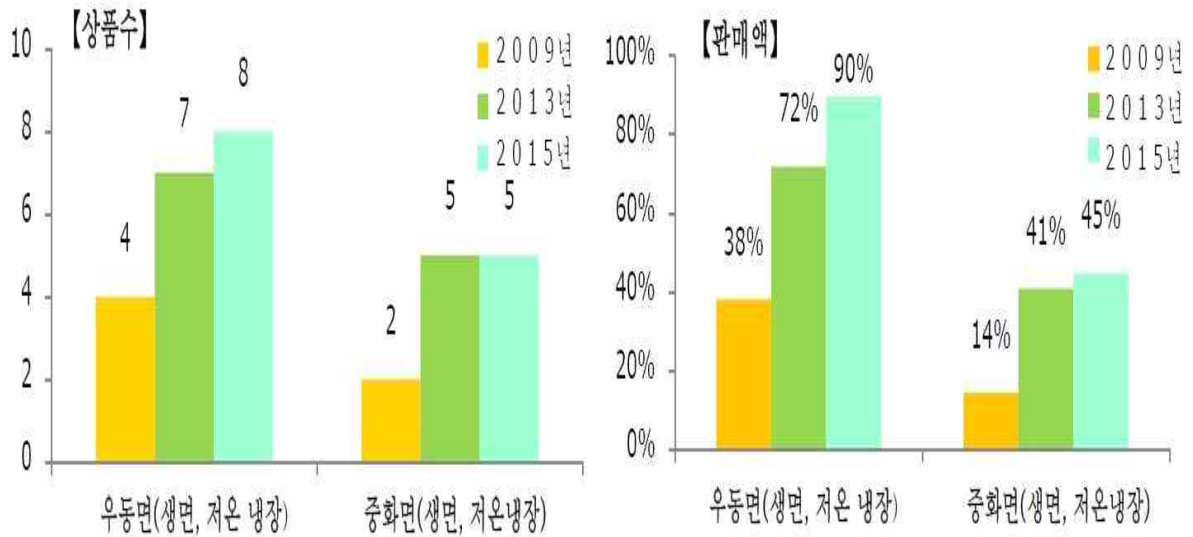
POS데이터 집계결과를 보면, 2009년 이후 '국산 밀 사용' 표시가 있는 상품의 점유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5년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일본의 식용 밀 1인당 연간 소비량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麦の需給に関する見通し」, 2020년 3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그림 19> '국산 밀 사용' 표시가 있는 상품 수와 판매액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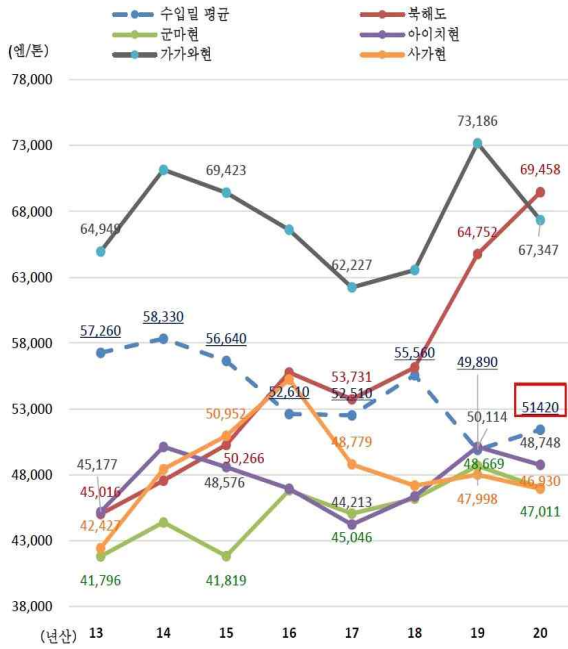
주 1) 넷케이 미디어 마케팅사의 수도권 슈퍼마켓 POS 데이터 집계치.

자료: 농림수산성, 「麦をめぐる最近の動向について」, 2020년 4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국내산 밀의 주요 용도인 제면용 거래가격은 2015년산까지 일부 산지의 가격을 제외하고 대체로 수입산 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지만, 2016년산부터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수입산 밀가루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빵용 국내산 밀 거래 가격은 2013년산까지는 수입산보다 고가로 거래되는 것이 많았으나, 2014년산부터는 수입산 밀과 비슷한 수준 또는 다소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림 20> 제면용 밀의 가격 추이



<그림 21> 제빵용 밀의 가격 추이



주 1) 국내산 밀 가격은 과중 전 제1회·제2회 입찰과 재입찰 시의 전 종목 낙찰 가장 평균 가격(세금 포함)이며, 수입 밀 가격은 국내산 밀 입찰 시점에 공표되는 수입 밀 정부 매도가격임.

자료: 농림수산성, 「麦の需給に関する見通し, 麦の参考資料」, 2020년 3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일본은 국내산 밀로는 양적 또는 질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수요분에 대해 정부가 국영 무역을 통해 계획적으로 수입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현재의 주된 수입처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3개국이다. 식량용 밀 수입량은 국내산 밀의 생산량과 수출국의 상황 등에 따라 변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480만~520만 톤 정도로 수입되고 있다. 2018년 식용 밀의 총 수입량은 489만 톤 이었으며, 이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량이 237만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로부터는 170만 8천 톤을 수입하였다.

<표 2> 국가별 식용 밀의 수입량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미국	2,877	2,327	2,276	2,815	2,370
캐나다	1,484	1,747	1,742	1,543	1,708
호주	877	848	833	877	805
기타	7	7	8	6	7
합계	5,245	4,929	4,858	5,242	4,890

자료: 농림수산성, 「麦の需給に関する見通し, 麦の参考資料」, 2020년 3월 공표자료.

4. 콩 수급 및 가격 동향

콩의 재배면적은 전후 식량증산에 의해 1950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1961년 수입자유화에 따른 수입량 증가 등을 배경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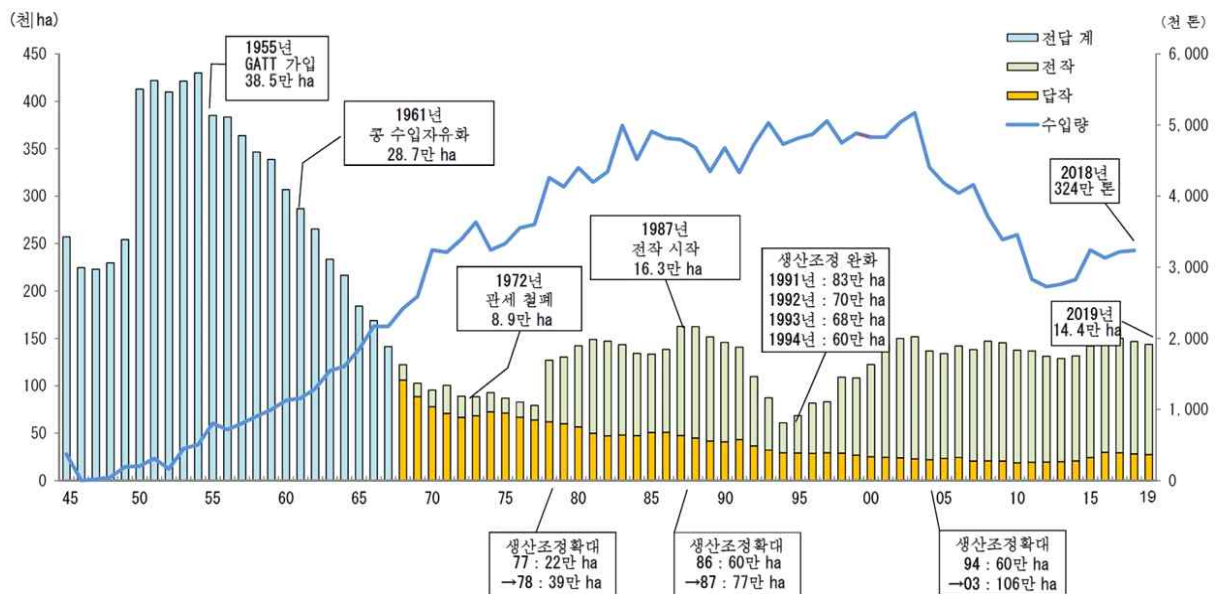
1969년 쌀의 생산조정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콩은 전작물로서 자리잡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논콩 재배면적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1978년에는 쌀 생산조정이 확대되면서 콩 재배면적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밭콩의 경우, 도부현의 밭의 개폐나 채소 등의 고수익 작물로의 전환에 의해 재배면적이 감소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홋카이도 지역에서의 재배면적이 늘어나 다소 증가하였다. 또한, 밭콩은 홋카이도가 전국 재배면적의 75%(전국: 2만 7,600ha, 홋카이도: 2만 700ha)를 차지하고 있다. 홋카이도 내에서는 밭콩 재배면적 비중이 53%(논: 18,400ha, 밭: 2만 700ha)를 차지한다.

일본의 전체 콩 수요량은 중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약 356만 톤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용 수요도 최근 늘어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101만 톤이 되었다. 국산 콩은 실수요자로부터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거의 전량이 두부, 콩자반, 낫토 등의 가공식품용으로 사용된다. 가공식품용으로 이용되는 국산 콩은 최근 증가 추세였으나, 2018년도는 기상악화에 따른 흉작으로 약 20만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콩 생산은 기상재해의 영향 등에 의해 감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가격도 크게 변동하고 있다. 2019년산 생산량은 기상악화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한 21만 톤이었으며, 국내산 가격은 60kg 기준 2,000엔 이상 상승하였다. 가격 안정은 국산 콩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안정적 생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림 22> 일본의 콩 재배면적 및 수입량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大豆をめぐる事情」, 2020년 7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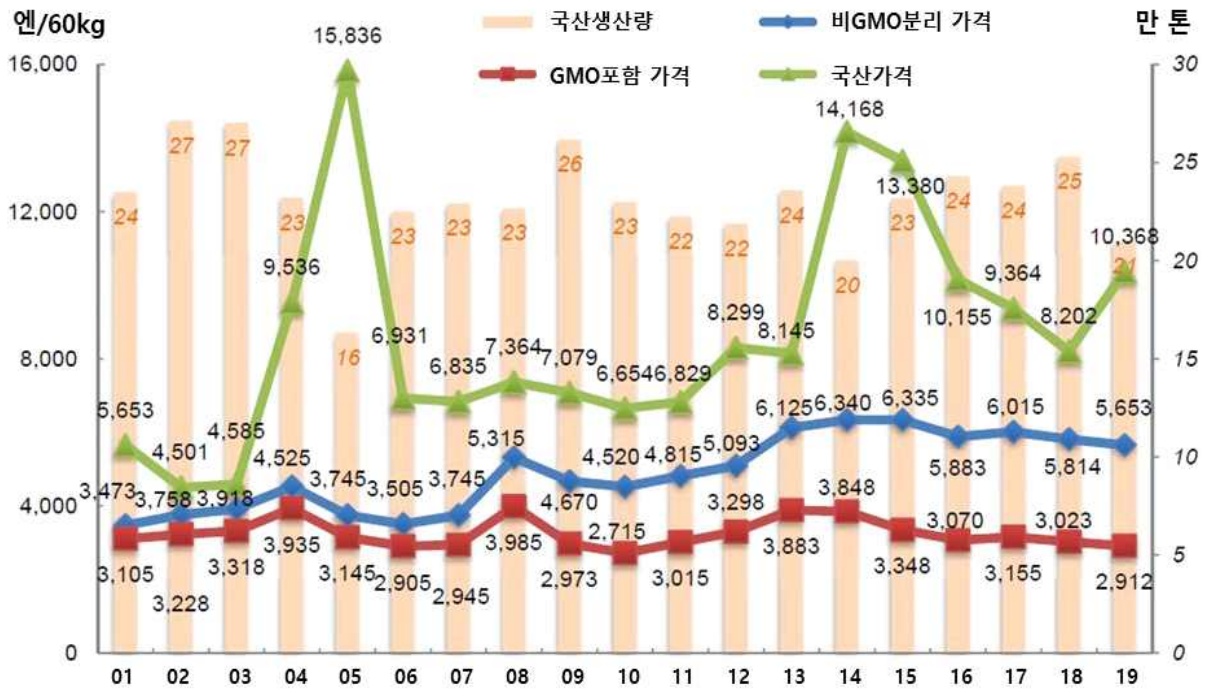
<표 3> 일본의 콩 수요 현황

단위: 천 톤

구분	전체 수요	가공식품 수요		자급률
		가공식품 수요	국산 수요	
			국산 수요	
2013	3,012	936	194	7%
2014	3,095	942	226	7%
2015	3,380	959	237	7%
2016	3,424	975	231	7%
2017	3,573	988	245	7%
2018	3,561	1,012	203	6%

자료: 농림수산성, 「大豆をめぐる事情」, 2020년 7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그림 23> 일본의 콩 생산량과 가격 추이



자료: 농림수산성, 「大豆をめぐる事情」, 2020년 7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5. 곡물 관련 최근 이슈

5.1. 코로나19와 쌀 소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2020년 2월 이후 외국인 여행자가 끊겨 쌀 수요 감소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 자제나 영업 자숙에 의한 중식·외식용 쌀 수요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은 방일 외국인 여행자 감소로 쌀 수요량은 약 1.5만 톤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일시적이거나 소매 수요가 높아진 점과 인터넷쇼핑 등에서의 식료품 구입액이 증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쌀 소비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영향으로 외식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가정에서의 식사가 늘어나고 있는 한편, 조리시간의 단축 등으로 보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 밥의 매출이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2020년 즉석밥 판매량은 전년 동월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24〉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 추이



주 1) 전년대비 감소한 2020년 방일 외국인 여행자(1,269만 명)가 한 공기 분량의 밥(65g)을 1일 2회 먹었다고 가정하고, 평균 체류기간 9일을 곱하여 산출함.

자료: 농림수산성, 「米の基本指針(案)に関する主なデータ等」, 2020년 7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표 4〉 최근 일본의 즉석밥 판매 동향

구분	단위: 톤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2월	20년 3월	20년 4월	20년 5월
판매량(정곡환산)	243	313	351	420	380	318
전년동월대비	100%	143%	166%	179%	168%	141%

자료: 농림수산성, 「米の基本指針(案)に関する主なデータ等」, 2020년 7월 공표자료에서 재인용.

5.2. '정미 연월일' 표시 개정

쌀의 원활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업자의 '정미 연월일'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농림수산성에 설치된 '농산물의 물류합리화에 관한 연구회·쌀 분과회'(2019년 3월 이후 개최)에서 '정미 연월일' 표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소비자는 '정미 연월일'이 최신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정미 연월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쌀은 충분히 식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미 연월일'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폐기 또는 판매 제외로 취급되어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또한, '정미 연월일'을 기준으로 가능한 빨리 판매해야 한다는 상관례에 따라 소매·양판점 측에서는 도정된 쌀의 단기 배송 요구가 많았다. 이로 인해 소량 배송의 빈도가 높아지고 유통비용의 증대로 이어졌으며, 이후 상품가격으로 전가되는 등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해당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일본 정부는 2020년 3월 27일부터 기존의 '정미 연월일' 표시와 함께 '정미 연월(상순/중순/하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멧음말

일본은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가 식생활의 서양화 및 간편화로 이어지면서 곡물 및 식량자급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늘어나는 축산물 및 유지류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료 및 유지 작물의 수입이 증가했다.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곡물 수입을 더욱 증대시키고 식량자급률 하락을 가속화 시켰다.

일본은 주식인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동안 쌀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온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이 장에서는 일본의 주요 곡물인 쌀, 밀, 보리, 콩을 중심으로 최신 수급 자료를 살펴보고,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식용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여 그동안 일본 정부가 논 활용 직접지불 교부금 등을 통해 신규수요 쌀 생산을 장려해 온 결과, 현재 일본의 사료용 및 쌀가루용 쌀 재배면적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일본의 쌀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우리나라도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생산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앞으로도 일본의 쌀 정책 추진에 따른 곡물 수급 동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농림수산성, 「米の基本指針(案)に関する主なデータ等」, 2020년 7월.
- 농림수산성, 「米穀の需給及び価格の安定に関する基本指針」.
- 농림수산성, 「米の消費拡大について」, 2020년 8월.
- 농림수산성, 「米に関するマンスリーレポート」, 2020년 9월.
-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関係資料」, 2020년 7월.
- 농림수산성, 「米をめぐる状況について」, 2020년 8월.
- 농림수산성, 「作物統計」.
- 농림수산성, 「飼料用米の推進について」, 2020년 7월.
- 농림수산성, 「知ってる? 日本の食料事情」, 2019년 9월.
- 농림수산성, 「食料需給表」.
- 농림수산성, 「麦の需給に関する見通し」, 2020년 3월.
- 농림수산성, 「麦の需給に関する見通し, 麦の参考資料」, 2020년 3월.
- 농림수산성, 「麦をめぐる最近の動向について」, 2020년 4월.
- 농림수산성, 「大豆をめぐる事情」, 2020년 7월.
-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s://www.maff.go.jp/>).
- 코메넷 홈페이지(<https://www.komenet.jp/>)